

닭고기 유통감시단 출범에 거는 기대



본지 김한웅 부장

닭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및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닭고기 유통감시단 출범식이 지난 5월 27일 대전 유성에서 있었다.

닭고기 유통감시단의 출범은 육계사육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국내 닭고기 산업, 다시 말해 닭고기 유통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동안 국내 닭고기 산업에 있어 유통시장은 사실상 통제 불능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수입닭고기의 경우 올 4월말 현재 1만25톤으로 한 달 평균 2천5백여톤이 수입됐다. 전년 동기간내의 수입량 2만175톤, 월평균 5천여 톤에 비하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닭고기 수입량 감소가 소비기반의 이탈 등 내적인 요인보다는 달러화 강세라는 외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산 닭고기의 수입은 언제든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문제는 닭고기의 수입량 증감 여부가 아니라 수입된 닭고기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들어 닭고기 수입은 닭고기 생산량 1위, 수출량 1위의 명성에 걸맞게 크게 미국産과 브라질産이 양분돼 수입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는 대부분이 닭다리(장각) 냉동제품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수입된 냉동닭다리는 해동에 이어 발골(뼈를 발라내는) 과정을 거치고 정육으로 변신해 유통되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 사실상 행방이 묘연해진다.

1달에 5천톤이면 국내산 닭으로 계산할 때 5백만수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로 연간 6천만수에 달하는 양

닭고기 유통감시단의 위치가 단순한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의 단속, 감시에서 벗어나 국내 닭고기 유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원동력으로 발돋움 해주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싶다.

이다. 1억수 분량이 수입됐던 시절도 있었으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찌됐던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면 닭고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항간에는 뼈 없는 닭갈비로, 또 뼈 없는 양념치킨으로 팔려나간다고 하는데 수입 닭고기라고 표기해놓고 판매하는 닭요리 전문점이나 치킨점은 하나도 없으니 어찌된 노릇인지 점점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으로 납품됐을까? 수입닭고기 납품을 받는 단체급식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물량이 전부 닭 꼬치로? 듣기로는 포장마차 등에서 판매되는 닭 꼬치는 따로 중국 쪽에서 가공된 채로 수입돼 공급된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 브라질산 닭다리는 다 어디로 팔려나갔을까? 참으로 아리송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버린 것도 아닐텐데...

무늬만 국내산인 저급 닭고기도 수입 닭고기의 유통과 오십보 백보(五十步百步)의 차이 일뿐 크게 나을 것도 없다.

병들어 폐기해야 하는 닭고기가 빨간 토종 닭으로 둔갑되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어디

서, 어떤 방식에 의해 도계된 것인지도 모르는 닭들이 계열화 사업체의 브랜드를 달고 멀쩡히 판매되는 것이 우리 닭고기 유통의 현실이고 보면 입맛이 씹쓸해진다.

어찌됐던 지금부터라도 육계사육농가를 기만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닭고기 유통감시단의 위치가 단순한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의 단속, 감시에서 벗어나 국내 닭고기 유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원동력으로 발돋움 해주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싶다.

닭고기 유통감시단은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육계, 닭고기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이자 산업의 구성원들이다. 우리의 닭고기 시장은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

항상 똑같은 마음이지만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법유통 행위를 하는 현장근처에 감시의 눈이 항상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K>